

사설

# 홍보관 철거, 향후 계획 공유돼야

염재호 총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홍보관의 철거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 홍보관을 철거한 뒤 새로운 건물을 세워 인문사회계 캠퍼스의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철거 소식을 접한 홍보관 내 기관과 단체들은 수십 년간 정든 곳을 떠날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이 옮길 자리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불안감 또한 가중되고 있다.

현재 본교 인문사회계 캠퍼스의 공간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단과대의 수업 공간은 물론, 대학의 다양한 기능을 맡은 행정부서와 교육기관들이 인문사회계 캠퍼스를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철거될 예정인 홍보관은 외관은 투박하고, 내부 시설은 낙후됐지만, 1968년 준공된 이후 50여 년 간 수많은 이들이 거쳐간 추억의 공간이다. 고대신문사는 홍보관의 첫 입주자였고, KTN을 운영하는 교육매체실을 비롯해 방송사 3곳, 영자신문사 등의 학내언론사와 문과대 학생회실 등의 학생자치공간, 그리고 산악부와 태권도부와 같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동아리도 들어서 있다. 교내 구성원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고려대우체국도 홍보관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교양의 국어실, 노조사무실 등의 기관까지 다양한 단

위가 입주해 있다. 하지만 철거 일정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도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세운 곳은 없어 보인다. 홍보관 3층에 위치한 우체국도 “소문만 들었을 뿐 학교 측에서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고, 모 단체도 “철거 후 대체공간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만 전해들었다”고 조심스레 드러내는 정도이다.

홍보관에 입주한 수많은 기관과 단위의 이전 계획이 단시일 내에 확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각 단체의 필요사항과 특성을 고려한 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재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철거를 앞둔 계획을 전달받지 못한 홍보관 내 구성원들이 조금씩 동요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공간 건설이 필요하고, 50년이 된 건물의 철거에 원론적인 합의는 가능하다. 하지만, 미시적으로 각 단위끼리 이해가 충돌한다면 홍보관 철거 등의 일정진행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학교당국에서 전향적으로 홍보관 이전계획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과 설명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의 희망을 공유해야 현재의 불편을 감수하기가 더 쉬워진다. 홍보관을 떠나야 하는 그 누구도 고려대의 발전과 진일보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가져올 것인가?

시론



남성욱  
본교 교수 통일외교학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4월말에는 판문점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5월안에 미북정상회담이 예정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남은 4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일이자 기적”이라고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동북아 외교전의 레이스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한국의 특사를 국빈 대접하며 정보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는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자른 것처럼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한 번에 해결하겠다고 기업을 토하고 있다.

남북은 물론 북·미 수뇌 상봉은 동북아 국제정치의 판을 구조적으로 뒤집는 플랜으로 6·25전쟁 이후 북핵 해결을 위한 전대미문의 초강수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2005년 9·19 공동성명 등 다양한 비핵화 시도가 있었으나 결과는 빈손이었다. 서류상의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외교관들이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작성한 한 쪽 분량의 합의서는 실패한 외교사로 기록될 뿐이다. 이제 북한은 6차재의 핵실험으로 20기 이상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운반수단을 보유했다. 초유의 북·미 간 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해결을 시도하는 마지막 카드가 등장했다.

집권 6년차의 세계 유일의 3대 세습

지도자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좌충우돌의 리더 간의 만남은 성사 자체로 흥행 성공이다. 선제적 타격이 심각하게 검토되던 상황에서 협상으로 비핵화 성과를 낸다면 올해도 노벨평화상은 확정된 셈이다. 5월에 판문점에서 양 정상은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선언한다면 계절의 여왕에 걸맞은 세계적인 빅이벤트가 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장밋빛 전망만으로 장미의 계절 5월을 기다려도 될 것인가. 33세의 젊은 3대 세습 독재자와 72세 고령의 비즈니스맨 출신의 노화한 지도자가 전격적인 회동으로 비핵화를 달성할 것인가. 포르노 배우와의 스캔들과 러시아 게이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와 딜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하고 대북강경파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을 임명했다. 트위터와 선전매체로 상대를 조롱하고 비하하던 지도자들이 성과 없이 만날 수는 없다. 부동산 투자로 오성급 호텔까지 소유한 트럼프는 손익계산서가 확실해야 게임에 나설 것이다.

역사적 반전을 기대하는 핵 담판은 기적도 아니고, 위험한 도박도 아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필수적이다. 우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예비적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2009년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철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복귀다. 사찰단의 복귀는 북한 비핵화의 진정할 의지를 시험하는 초기 관문이다. 이후 유엔 제재 중에서 민생용 성격이 짙은 제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핵무기의 동결만으로 모든 제재의 해제는 비즈니스 거래에 부합하지 않는다. 핵동결+사찰

→비핵화→경제지원의 로드맵은 완벽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로 가는 첩경이다.

최대의 난관은 정상회담(summit)이 쥐엣인지, 개인체인지(혁신 주도자)인지 모호한 김정은의 복잡이다. 평양이 1988년 서울올림픽 불참을 교훈삼아 평창올림픽 참가를 전격 결정하는 것은 현란한 북한외교 전략의 결과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을 단숨에 정면 돌파하려는 평양의 올인 전략이다. 지난해 가을부터 국제적 압박으로 현금이 고갈되기 시작한 북한은 비핵화를 앞세워 난국을 돌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랜드바겐을 방자한 쇼 외교로 시간을 벌고 제재의 예봉을 잠시 무디게 하려 한다면 5월 장미꽃은 계절이 바뀌면 시들 것이다. CNN을 동원해 냉각탑을 폭파했지만 전사용으로 관망된 위장 전술이 과거 한두 사례가 아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제네바 협상 당시보다 북한의 몸값은 훨씬 비싸졌다. 이란 핵협상 이행 과정을 정리한 문서가 트럭 한 대 분량이다. 첩첩산중의 비핵화 여정에 오솔길을 냈으나 길을 잘못 디디면 벼랑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협상 실패는 외교적 대안의 소진을 의미하며 군사적 옵션으로 이어진다. 대화가 미사일보다 바람직하지만 평양 독재자와의 협상은 고난의 행군 수준이다. 세계적인 핵 담판의 리얼리티 쇼는 한 번이면 족하다. 추가적인 쇼는 무의미하다. ‘한 번 속는 것은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 잘못(Fool me once, shame on you. Fool me twice, shame on me)’이라는 미국 속담을 상기할 시점이다.

석탑추추

## 기다려요, 당신의 열정을!

그렇게나 살갓을 때려대던 겨울 추위가 한 발 물러간 일주일이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감싼 캠퍼스는 대학생활의 낭만을 처음 맛보는 신입생들로 북적였다. 두꺼운 롬패딩을 벗어던지고, 봄맞이 옷을 새로 하나 장만해야겠다며 재잘거리는 기자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다. 딱, 여기까지. 이틀간 인광을 가득채운 동아리 박람회에 취재를 위한 발걸음은 또다시 바빠진다. 새로운 인연을 찾아야 여념이 없는 동아리들과, 그들을 보며 즐거운 고민에 빠진 신입생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이리저리 뛰어 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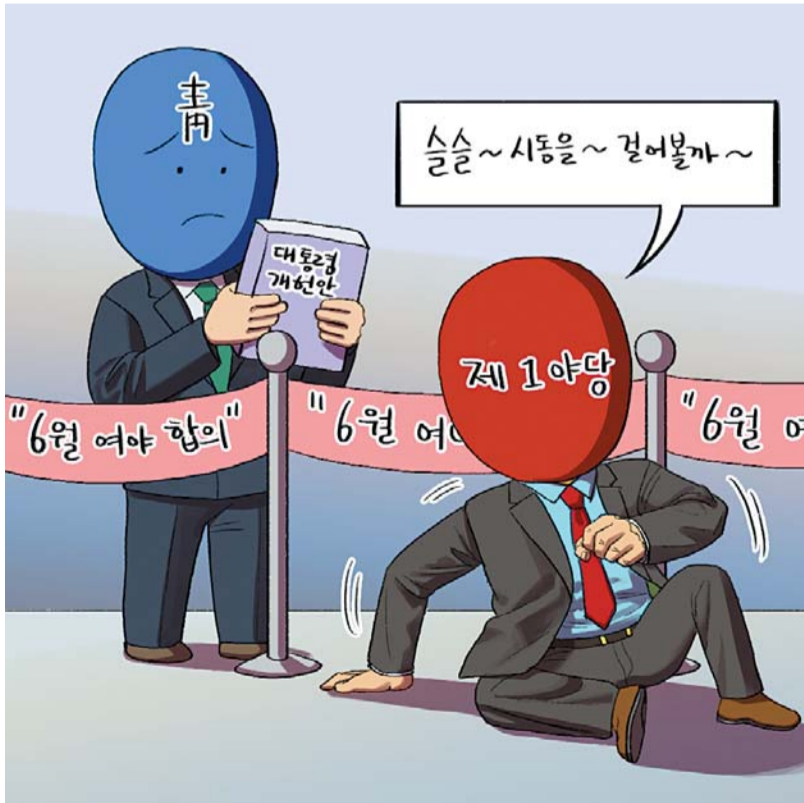
그렇지, 대학생활의 꽃은 단연 동아리 아니겠는가. 학창시절의 스펙을 위한 그것과는(다 그렇지는 않지만) 또 다른 무대가 마련되어 있다. 평생의 친구를, 존경스러운 선배를, 뜨겁게 사랑할 연인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 신중하게, 또 과감하게 선택하시라.

아울러 고대신문도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고 있음을 전한다. 매주 이어지는 치열한 고민의 현장. 바로 이 편집실에서 당신과 만들어갈 소중한 추억을 기대한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시길!

장강빈 취재부장 shining@

석탑만평

주재민 전문기자



## 고대신문사 The Korea University Weekly

1947년 11월 3일 창간	취재부장	장강빈	FAX	02-928-0879
주간	매주 월요일 발행	사회부장	김민준	메일 press@kunews.ac.kr
		학술·문화부장	류승현	핸드폰 010-3363-1947
발행인	염재호	편집국	02-3290-1683	페이스북 /kunews1947
편집인 겸 주간	허태균		02-923-4408	엘로아이디 @고대신문
인쇄인	김교준	세종 편집국	044-860-1888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편집국장	이민준	총무국	02-3290-1682	홍보관 2층

수레바퀴

## 자연에 대한 의문, 답을 찾아온 길

2018년 3월 14일. 아인슈타인이 탄생한 지 139년 되는 날에 천체물리학의 천재 스티븐 호킹 교수가 사망했다. 호킹은 온 몸으로 루게릭병과 싸우며 블랙홀과 우주론의 이해와 진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의 위대한 업적에도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진다. ‘우주론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지?’

1687년 아이작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세상에 내뱉을 때 사람들은 뉴턴 이론이 자연의 법칙을 모두 설명해줄 것이라 믿고 정의했다. 190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이론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1915년 아인슈타인은 중력장 방정식을 일반 상대성이론과 함께 발표했다. 한 줄의 식으로 전혀 별개인 줄 알았던 시공간과 에너지가 얽혀있다고 소개했

다. 이 수식과 함께 우주론이 등장했고 물리학자들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더 많은 의문점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호킹을 비롯한 많은 물리학자들의 연구에도 우주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난제 덩어리다. 현재까지 표준우주모형으로 지칭된 ΛCDM 모형은 우주 물질의 전체 구성성분 5%만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자연과학은 자연 그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연은 많은 것을 인간에게 제공했다. 인류는 이를 이용해 불을 피우고 도구를 만들어 생존을 이어갔다. 이러한 자연과학을 알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시도가 필요하다.

1887년 마이컬슨과 몰리는 에테르를 찾기 위해 마이컬슨 간섭계로 긴 시간 동안 측정을 했다. 결과는 빛을 전달

하기 위한 매질, 즉 에테르를 측정하지 못해 ‘에테르는 필요없다’는 결론을 낸 실험이 됐다. 이 실험은 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패라 불리기도 한다. 실험을 실패했다고 그 주제를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현명한 답이 아닐지 모른다.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쿠퍼(매튜 맥커너히)가 남긴 말이다. 이 세상엔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 이를 찾기 위해 여러 시도는 필수적이다. 하나하나 알아가려는 노력이 축적돼야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젠 우주론의 연구가 왜 필요한지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는 것이 어떨까. 자연이 있기에 우리가 있고, 자연을 알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류승현 학술 문화부장 ryus@

종단횡단

## 더 이상의 ‘소수패싱’은 그만

“언니, 바시 전공은 상평 맞지? 그냥 보환용 전공을 들어야겠다.” 다음 학기 시간표를 짤 때마다 동기끼리 보건과학 대학 신설학과 중 어느 학과가 상대평가인지 물어보곤 한다. 우리 학과엔 전공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없어졌기 때문이다. 2016년 5월 말, 학교는 10명도 되지 않는 인원을 위해 전공수업을 열어줄 수 없다고 했다. 학교에서는 전공수업을 여는데 드는 돈을 아껴야 한다며 다른 학과의 전공으로 학점을 채우라고 했다. 남아있는 30여 명이 할 수 있는 건 유사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다른 학과의 과목을 찾아내는 것뿐이었다. 다음날 최대한 많은 유사과목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총회가 열렸다. 다음 학기부터 420만 원을 내고 다른 학과

의 전공을 들으면서 학교에 다녔다.

돈을 아끼기 위해 사라진 건 우리학과 전공만이 아니었다. 지난 7일 봅슬레이 4인승 팀은 기자회견에서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 상비군이 해체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2016년부터 운영된 상비군은 정부로부터 연간 8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됐다. 하지만 이달 초 대한체육회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비군을 해체했다. 상비군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썰매 정비, 날 관리, 썰매 이동 등 여러 역할을 해왔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얻은 좋은 결과에 이들도 기여했다.

대한체육회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좀 더 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종목에 돈을 쓰기 위해서가 아닐까.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도 두어 달 사용되고 폐쇄됐다. 외국인 코치진도 계약이 끝나 자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더 들여 상비군을 운영하는 건 대한체육회 입장에선 불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매일유업에선 단 17명만을 위한 특수 분유를 만든다. 이 분유를 만들면 매년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이 제품을 만드는 이유는 매일유업이 아니면 17명의 환아는 비싼 수입산 분유에 의존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동화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단 하나다. 소수를 위해 큰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드물고 드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도, 대한체육회도 가끔은 이런 동화를 써주길 기대한다.

김혜윤 기자 cutie@